

북스

Books

마흔, 진정한 나를 찾아라

마흔의 심리학 이경수·김진세 지음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40세가 돼서는 미혹하지 않았다)’ 공자의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문장이다. 흔히 나이 마흔을 ‘불혹(不惑)’이라 부르는 것은 여기서 비롯됐다. 공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 과연 지금 마흔의 남성들은 세상 일에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을까. 공자도 현대에 살았다면 절대 마흔을 불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유없이 찾아온 우울증에, 직장에서는 더 이상 새로움이나 의욕을 찾기 힘들고 이제 ‘한 식구’가 돼 버린 아내를 여자라 느껴지지 않는다. 아이들 학비는 늘어만 가고 은행 대출금 걱정도 머리 속을 떠나질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는 것. 30대의 젊음에 대한 자신감도, 50대의 늙어감에 대한 인정도 어려운 40대. 지금, 그들이 불안하다.

“마흔의 심리학”은 마흔을 갖 낚긴 한 셀러리맨이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기를 넘기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저자인 기자 출신 이경수씨와 정신과 전문의 김진세씨의 실제 치료기록으로 봐도 무방하다.

올해로 마흔들이 된 이씨가 김씨를 찾은 것은 올 초. “압착기에 머리가 꼭 끼어버린 것 같은 기분, 압박감이 점점 더 되어오고 있는데 어디로 피할 수가 없는 내 입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 마음 편하게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사실, 어느새 내 나이 마흔이 됐다는 자괴감, 아이들은 점점 더 커가고 돈 들어갈 데는 많아진다”는 병록한 현실...”(27쪽)을 느낀 이씨의 우울증을



이경수(왼쪽)씨와 정신과 전문의 김진세씨는 올해 초 1~3월 모두 10차례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

알아차린 후배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일반적인 환자와 의사의 관계와는 조금 달랐다. “얼마나 못한 사회 부처응자면 거 거 하나 못 이기고 힘들어할까”라는 식의 손가락질아 돌아올 것만 같았던 이씨는 병원이 아닌 바깥에서 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의 진단 결과 이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올 초 1~3월 모두 10차례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주중 동생 사이가 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12가지 주제로 분류해 책을 엮었다. 대주제는 나(우울증·일탈·정체성·변화), 관계(아버지·어머니와 아내·인간관계·대화), 고민(사실대의 성(性)·나이·자녀교육·비자금) 등 세 가지. 마흔살 남성의 심리상태를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동료이며 남편이고, 아들이자 아버지이기 때

문이다.

김씨는 대주제 별로 적절한 심리치방을 내놓고 있다. 이씨는 정신과 전문의 ‘행’과의 대화 이후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 가족들과 두달 동안 유럽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다. 은퇴 후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일보다는 은퇴 걱정없이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이씨에게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즉흥적 선택일 수 없다. 다녀와서의 계획도 준비돼 있다. 김씨의 충고대로 “현실에 바탕을 둔 제 아이를 찾아나선 것”이다.

아이들의 문자를 받고 이씨가 떠올랐다면 폴 발레리의 시구가, 이씨의 ‘용기있는 도전’을 접하자 자연스럽게 다시 뇌리를 스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중국인 소설가 위 화 소설 3권 동시 출간

‘허삼관 매월기’의 저자인 중국인 소설가 위 화의 소설 3권이 동시 출간됐다.

장편소설 ‘가랑비 속의 외침’은 대표작 ‘허삼관 매월기’, ‘인생’으로 이뤄진 ‘인생 3부작’의 첫 번째 작품. ‘허삼관 매월기’가 중년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인생’이 노년에 돌아보는 인생관을 그려낸다면 ‘가랑비 속의 외침’은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풀어간다.

중편소설집 ‘세상은 연기와 같다’는 1988년에 발표된 4권의 중편소설을 모은 것. 현실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내세워 삶의 진실이 일상의 이면에 있다는 저자의 믿음을 표현해내고 있다. 단편소설집 ‘내게는 이름이 없다’에는 저자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쓴 17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푸른숲·각 권 1만원〉

다산어록 청상 정 민 지음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평생 500권의 저술을 남길 정도로 학문에 정진한 대학자다. 다산이 남긴 ‘목민심서’, ‘홍음서’ 등 대표적인 책의 제목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과 사상을 방대한 저술을 통해 읽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만큼 다산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먼 저자인 것이다.

한양대 국문과 교수인 정민 교수가 쓴 ‘다산어록 청상(茶山語錄淸賞)’은 다산의 각종 저술에 담겨있는 삶에 대한 관찰과 체세에 대한 철학을 담은 글 120개를 간추린 책이다. 책의 제목인 ‘다산어록청상

에서 ‘청상’이라는 말은 ‘맑게 감상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다산이 퇴계선생의 글을 읽고 난 감상을 ‘도산사속록(陶山私淑錄)’으로 남겼듯이 이 책에서 다산의 글에 자신의 느낌을 덧붙여 독자와 함께 다산 읽기를 시도한다.

다산은 문인, 학자, 정치가로 이름 높았지만 작은 기쁨을 맞볼 줄 알았던 선비였다. 그는 ‘또 정수철에게 주는 말(又爲丁修七贈言)’에서 “더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하다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기쁨은 먼 데 판 데 있지 않다. 즐거움은 코 앞 발밑에 있다”고 일갈한다.

간직에서 유배의 고초를 겪었던 다산은 두 아들에게 “재물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을 보석이 된다”며 베품의 미학을 강조한다.

좌절한 젊은 후학을 격려하는 글에는 담대하게 한 세상을 살았던 선비의 기개가 넘쳐난다. “한때의 좌절로 정운의 뜻이 꺾여서는 안된다. 사나이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한 마리 가을 매가 하늘을 박차고 오르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贈學游家誠)

평생 학문에 정진했던 다산이 즐겼던 공부법은 책을 읽다가 요긴한 대목이 나올 경우 이를 옮겨 적는 방법이었다. 다산은 이같은 공부법을 자식들에게도 적극 권장했다.

실학자였던 다산은 재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웃’을 쓰는 것을 경계했다. “경솔하게 이웃돈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집안을 망친다”는 경고는 현재도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푸른매·1만2천8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옛 사람 맑은 생각 120가지 가르침



▲제비밀기=프랑스 현대 소설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벨리 노통브의 신작. 1992년부터 매년 가을 신작을 내놓고 있는 저자의 ‘다작’은 문단 안팎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번 소설은 살인을 통해서만 희열을 얻는 한 남자의 슬픈 초상을 그리고 있다. 〈문학세계사·8천원〉

▲소설 히피티아=라파엘로의 명화 ‘아테네 학당’에는 고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다. 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히피티아의 삶이 소설로 재탄생했다. 작가 브라이언 트랜트는 인류 최초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히피티아가 광산도들에게 살해 당하기 전 몇 주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공리·1만2천원〉

▲아이 러브 유=일본의 유명 추리소설가 이사가 고타로, ‘4teen’으로 나오기상을 수상한 이시다 이라,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이치카와 다쿠지 등 일본의 대표적인 남성작가들의 작품을 엮은 연애소설집. 6명이 쓴 단편소설 6편이 실려 있다. 〈해냄·1만2천800원〉

▲비밀의 숲=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에세이집. ‘주간 아사히’에 연재된 글을 모았다. 알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주부 이야기,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공중부유 클럽 이야기, 이상한 러브호텔 이름 파헤치기, 장수(長壽) 고양이의 비밀 등 60편의 하루키식 수다가 계속된다. 〈문학사상사·1만원〉

▲기로에 선 시민입법=‘시민사회운동은 끝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했던 홍일표씨가 실천가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을 적은 책. 동시 출간된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는 정태석씨가 학자적 관점에서 비춘다. 〈후마니타스·1만5천원〉

▲오픈 북=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30여년간 서평 담당 기사를 지내고 플리처상까지 받은 마이클 더다의 독서 자서전. 스무살이 되던 때까지의 경험과 독후감이 실렸다. 책 말미에 적힌 16세 더다의 독서 목록은 거의 고전. 유명 작가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 평상이 흥미롭다. 〈을유문화사·1만5천원〉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송기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각종 역사왜곡과 동북공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국가 간 역사 또는 영토 분쟁이 상호 배척되는 이중 잣대 때문이라고 말한다. 풍부한 사료를 통해 한국·일본·중국의 역사분쟁 핵심인 자민족 중심주의를 되짚는다. 〈슬·1만8천원〉

▲한국여성농민운동사=한국가톨릭농촌여성회를 주도한 1970~90년대 여성농민운동의 산증인 엄영애씨가 한국 여성농민운동의 흐름을 정리했다. 여성농민의 실태와 활동, 교육, 조직화 과정 등을 일제시대에서부터 여성농민회가 자리 잡던 1993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례와 자료로 보여준다. 〈나무와숲·3만5천원〉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성동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찻집, 레스토랑, 고전문점 전문
· 1층 50평 임대
·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국·생원아파트 정문앞

회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회원회복지)
· 봉선동 최고아파트 (쌍용·한국아파트 정문앞)
· 최고의 주거지역
· 초·중·고 인접

회원 임대
· 봉선동 쌍용·한국아파트 입구
· 대로변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일러 185만
·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품 포함

토지매도
· 광산구 신정동 하남택지지구 뒷면 - 달750평 평당75만원(자연녹지) 8m도로전 6차선계획도로입
· 수원택지지구 D블록 근린생활지역 - 대70평 평당 6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쌍용아파트 정문앞 - 대지140평, 건평 200평, 매매가 11억5천(음자4억)신축건물

모델매매
· 여수시 학동 비닷가방 - 대지370평 건평 560평 객실 42층지15억 매매가 25억 월매출 4천만 이상

합동법률경매(주)
(광주지방법원 앞)
☎ 433-7799 H.P. : 011-1770-3328

▶ 아파트 (단위 단위)
신도시(44동) 154호 64.75 398,000 296,200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 상가/주택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 근린시설/상가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 숙박시설(모텔)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 대지/농지/임야/공장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신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문서,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실거래, 낙찰가이상분서
예고등기, 전수위 가등기, 가처분, 가집행처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 모델/침실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대표이사 011-666-8446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 상가주택/주택 ▶ 공장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 임야/농지 ▶ 아파트
신도시(44동) 151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2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3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4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5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6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7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8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59호 64.43 394,000 292,000
신도시(44동) 160호 64.43 394,000 292,000

S the 1 요리학원 大특강 개강

★ 제2기 카빙(carving) 과일조각장식·스시(초밥)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한식조리사반 (3개월과정)
- 양식조리사반 (2개월과정)
- 일식조리사반 (2개월과정)
- 중식조리사반 (2개월과정)
- 생활요리반 (2개월과정)
- 카빙과일조각장식반 (1개월과정)
- 스시반 · 스시창업반 (1개월과정)
- 식공간 연출반 (3개월과정)
- 월~금 : 이론수업 11시, 7시
- 월수금 : 한식실습 2시, 7시
- 화목토 : 양식실습 7시
- 화목 : 일식실습 3시
- 화목 : 중식실습 7시
- 화 : 과일조각실습 오후4시
- 토 : 복어실습 10시
- 토 : 스시반 2시
- 토 : 스시창업반 4시
- 토 : 식공간 연출반 10시

제4회 대한민국 향토 식문화 대전(10월) 테이블셋팅·요리·카빙조각 대회반 모집(원장직접지도)

◎ 제4회 서울푸드엔터테인먼트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2007년 6월 3일) ◎

S the 1 요리학원 (062)385-0723~4
● 위치 : 금호파출소 맞은편 인애빌딩 3층